

## 덕질, 대중문화 이끌다

피규어·가수·야구선수·빵 등  
누군가·무언가를 좋아하는 행위  
일상에 활력 주고·팬덤문화 형성  
문화 소비·향유의 주체로 나서

**?** 덕질 '덕후질'의 약어로 '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일'을 의미한다.

# "전래동화가 아이들만이 읽는 이야기라고요? 전래동화의 매력이 빠져들면 그런 생각은 쏙 들어갈 거예요." 지난 8월 20일, 광주 동구의 복합문화공간 '호랑이 소굴'에 전래동화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였다. 전래동화를 탐구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즐기는 동아리 '옛SSUL(옛설)' 멤버들이었다.

# "두달 자식 홀로 키워 시집보내 외국산 지 20년. 홀로 병마 싸우다 영탁님 만나 의지하며 웃음 잃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워요." 트로트 가수 영탁의 팬인 70대 여성 L씨는 지난 7월말, 혼자 힘으로 하이브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영탁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무언가를, 누군가를 좋아하는 '덕질'이 팍팍한 현실에 생기를 주고 있다. 요즘 '어덕행담'이라는 신조어가 '덕후'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는 의미이다.

한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을 일컫는 일본어 '오타쿠'(御宅)가 우리말 '오덕후'→'오덕(덕후)로 변화하며 '덕질'과 '덕후'가 일상어로 자리잡다 시피 했다. '덕질'의 대상은 피규어와 트로트 가수, 아이돌, 프로야구 선수, 소설가 하루키, 밴드 산울림, 빵, 구름 등 다양하다. 나라와 세대를 막론하고 누군가를, 무언가를 최애(最愛)하는 '덕질'은 개인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새로운 팬덤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트로트 가수를 대상으로 한 '월드 실버' 또는 오픈(OPAL-Old People with Active Lives) 세대의 '덕질'이 가장 두드러진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팬클럽 활동과 콘서트 참여, 굿즈 구매 등 대중문화를 소비·향유하는 '덕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기높은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는 티켓팅은 워낙 치열한 까닭에 '피켓팅'(피+티켓팅)으로 불리기도 한다.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트로트가수 콘서트가 열릴 때면 3층 카페 건물에 가수의 얼굴이 담긴 대형 플



누군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덕질'은 개인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팬덤문화를 이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열린 기획전 '광주가 사랑했던 [ ] 그리고 한류' (6월 20~8월 18일) 전시장.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래카드가 걸리고, 거리에는 팬클럽 회원들의 유니폼으로 물결을 이룬다.

'덕매'(덕질 매이트·함께 덕질하는 친구)와 함께 떠나는 '성지 여행'은 덕후들의 커다란 즐거움이기도 하다. 팬클럽 회원들은 자신들이 '덕질'하는 가수의 생일 등에 맞춰 사회복지 기부에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발산하고 있다.

프로야구 또한 MZ세대, 특히 젊은 여성팬들의 발길이 늘며 굿즈 솟다 붐빈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굿즈 구매에 기꺼이 지갑을 연다. 가이타이거즈의 경우 '최연소 30-30' 기록을 세운 김도영 선수의 마킹 유니폼이 올 상반기에 2만 장 넘게 팔릴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아이돌과 트로트 가수 등을 광고모델로 쓴

체들은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한다. '전팬' 소비자들의 '디깅력'(Digging+力)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주 동구가 '덕질 여행'을 테마로 한 '덕질 쌀롱' 프로젝트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래동화탐구 덕질'을 비롯해 '대본 리딩', '기아 덕질', '공포방탈출 덕질' 등 22개의 '덕질쌀롱'이 동구를 '덕질의 일번지'로 변화시킬지 기대를 모은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정두용 '덕질쌀롱' 감독은 "내가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면서 "누구나 덕질할 수 있는 곳, 덕질의 성지가 될 광주를 상상해본다"고 말했다.

/이보람·양재희 기자 boram@kwangju.co.kr

## 전공의 떠난 조대병원, 간호사들마저 파업

전공의들이 떠난 조선대학교병원 의료현장을 지켜오던 간호사들마저 결국 파업에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병원지부는 29일 오전 8시 30분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6면>

전국보건의료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조정에 나선 전국 62개 병원 중 조선대병원은 타결이 되지 않은 유일한 상급병원으로 남았다.

노조는 이날 새벽까지 조선대병원측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조는 조선대병원과 지난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줄다리기 교섭을 진행했다. 협상에서 노조와 병원측은 임금 인상 2.5%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상분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교섭은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소급적용을 주장했지만, 병원측은 9월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조는 "전공의가 떠난 의료공백을 매워온 간호사 등 보건 의료노조들이 강제연차 사용, 무분별한 타부서 파견, 무급휴가 중용 등으로 임금이 실질적으로 삭감됐다"면서 "희생했던 부분에 대해 기본

적인 것만이라도 보상에 달라는 것이고, 임단협 소급 적용은 기본인데도 병원측은 이조차도 해 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대병원 측은 "노조가 파업을 시작했지만, 지속적으로 교섭을 진행해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파업이 시작됨에 따라 이날부터 조합원 1200여명 중 필수 의료인력 4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800여명이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선대병원측은 총파업 첫날인 29일 3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의대교수(150여명)를 포함한 나머지 비조합원 800여명과 아직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어 파업 첫날 진료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는 게 조선대병원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조합원의 파업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상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반면 노사 양측이 소급적용 시기를 이견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타결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온다.

한편 조선대병원 노조와 같이 조정을 진행한 호남권역재활병원 지부도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다음달 초 파업을 예고했다. 순천 성가톨릭병원의 경우 교섭이 타결됐다. /정병호 기자 jusbh@

## "글로벌 선정 안 된 지역 대학 위한 추가 대책 있다"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날 발표한 글로벌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대학을 위한 추가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글로벌 대학은 예산 제약이 있다 보니 1년에 10개 정도, 우리 정부 3년 동안 30개 전체 대학의 1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다 해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예비 지정된 학교도 있고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지역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니 글로벌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강조한 뒤 연금 개혁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뀌어나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후면 단속 카메라, 이론차 불법도 잡는다 ▶7면

복스 '신안 천사섬' 조선 500년의 거지말 ▶14·15면

KIA 스타우트 출격 준비 "승리하고 싶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전라남도

### 놓쳐서는 안될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전북, 충북, 강원도에도 여러 개 있는  
의과대학이 전남에만 없습니다.

온 도민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마침내 정부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 대통령 '민생토론회'(24년 3월)

'전남도가 어느 대학에 의대를 설립할지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

◆ 국무총리 '정부합동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24년 3월)

'의대가 없는 전남의 경우, 의견 수렴해 신청하면 정부가 신속 추진'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 상임위원회'(24년 6월)

'교육부는 전남도 공모 결과를 존중해 협의 진행'

◆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상임위원회'(24년 7월)

'전남도가 빨리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전남 국립의대 신설 신속 검토'

### 전남도가 정부 요청대로 대학을 추천해야 정부가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학 추천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전남도는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모 방식에 의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양 대학이 참여하고 온 도민이 합심해 뜻을 관철해야 합니다.

전남도는 추천되지 않은 지역과 대학에 대해서도 추천된 지역에 버금가는 의료혜택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